

2021년 일본경제 전망과 중소기업의 성장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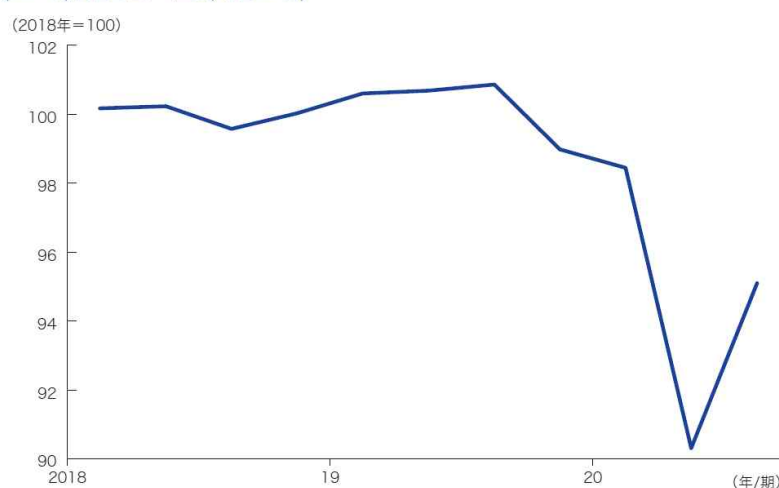
※ 이 자료는 常陽産業研究所『2021年の日本経済の展望と中小企業の成長戦略』(2021.02.10.)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일본 경기는 중국의 조기 경기회복과 선진국의 재화 소비 회복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향후 증가 페이스가 둔화되고 인바운드 수요는 계속 제로에 가까울 것임
- 또한 개인소비는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수습되지 않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것임
- 기업들도 설비투자에 조심스러운 경향이지만 리먼 쇼크 때에 비하면 하락 폭은 적음
-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행동 변화에 맞춰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형해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신규사업 진출이나 판로 확대로 연결해 가는 것이 요구될 것임

□ 일본 경기의 현황

- 일본에서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바운드 수요 및 국내 소비활동이 대폭 줄고, 수출도 세계 각국에서 실시된 락다운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음
- 그러나 20년 여름 이후는 각국의 경제활동 정상화를 향한 노력을 배경으로 경기는 최악기를 벗어났고 20년 3분기의 실질 GDP는 +22.9%(전기 대비)로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음
- 다만 이는 20년 2분기 침체의 60% 정도만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전년을 6% 정도 밑돌고 있음(도표1)

(도표1)실질GDP 수준(계절조정)



(資料) 内閣府を基に日本総研作成

- 수요 항목별로 보면 수출 회복세가 두드러짐
 - 재화 수출은 20년 6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10월에는 신형 코로나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인 2월 수준을 거의 회복했고, 이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 활동도 회복되고 있어 광공업 생산 지수는 5월을 저점으로 상승이 계속되고 있음
- 한편 내수는 여전히 정체 기미이고 특히 개인소비는 신종 코로나 유행 전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여기에 기업들도 설비투자에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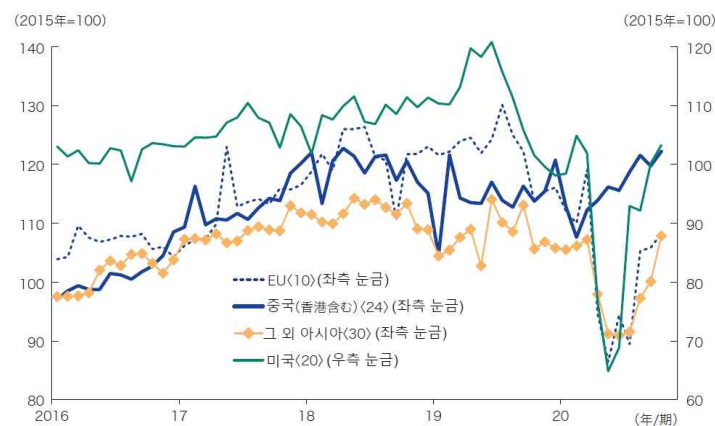
□ 향후 전망 포인트

1. 외수(外需)

(1)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조기 경기회복

- 중국은 코로나19 감염자 조기 억제에 성공과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공업 생산은 2019년과 같은 정도의 증산 페이스로 회복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해 대(對)중국 수출은 코로나19 유행 전의 수준을 웃돌고 있음(도표2)

(도표2)지역별 실질 수출(계절조정)



(資料) 財務省、日本銀行を基に日本総研作成
 (注) 〈 〉は2019年の名目輸出シェア。

(2) 선진국의 재화소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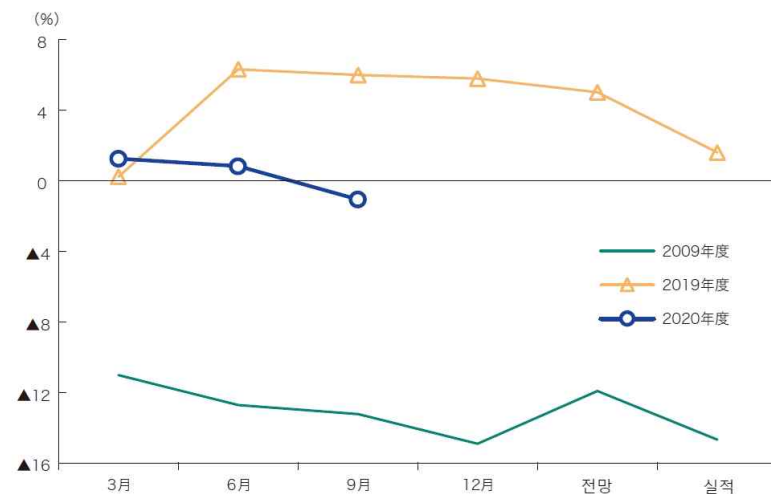
- 구미(歐美) 각국은 락다운을 단행한 결과 20년 5월 이후는 감염자나 사망자의 수가 감소세로 변하면서 활동 제한 완화에 착수했지만, 중국에 비해 경제활동의 회복은 늦음
 - 다만 경제활동 전반의 회복이 늦는 것은 아니고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서비스 소비는 감소가 계속 되는 한편, 자동차나 의료품 등의 소비는 20년 6월 이후 신형 코로나 유행 전을 웃돌고 있고 유로권에서도 소비의 대표적인 지표인 소매 매출액은 6월에는 연초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 이러한 선진국에서의 상품 소비의 선행회복이 무역거래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구미 대상 수출도 5월을 기점으로 증가 경향이 계속 되고 있음
- 다만 향후 증가 페이스가 둔화되고 인바운드 수요는 거의 제로인 상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 코로나19 침체분을 대부분 회복한 것과 작년 가을 이후 구미 제국을 중심으로 신형 코로나 유행이 재확대되어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임

2. 설비투자

- 기업은 설비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지만 리먼 쇼크 시기의 각종 투자 부진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일본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의 설비투자 계획은 전년도 대비 ▲1.7%로 리먼 쇼크 당시인 2009년도(▲14.7%)와 비교해 하락 폭이 적음(도표3)

(도표3)설비투자 계획 움직임(전규모 · 전산업, 전년도비)



(資料) 日本銀行「全国企業短期経済観測調査」

(注) ソフトウェアを含み、土地・研究開発投資を含まない。

(1) 디지털화 관련 투자 수요의 고조

- 2020년도의 설비투자 계획을 형태별로 보면 생산기계나 공장건설 등의 투자는 계속해서 하향수정되는 한편, 기업의 디지털화와 직결되는 소프트웨어 투자는 코로나로 인해 크게 상향수정되고 있고, 또 기계 투자 중에서도 서버나 PC, 통신기 등 정보기기 투자는 그 외의 기계투자에 비해 침체 폭이 작음
 - 디지털화 투자는 생산성 향상이나 근로 방식 개혁이라는 종래의 투자 니즈에 더해 원격근무나 공장의 자동화 등 신형 코로나 감염 리스크 억제라는 관점에서도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2) 기업 수익의 침체가 리먼 쇼크 때에 비해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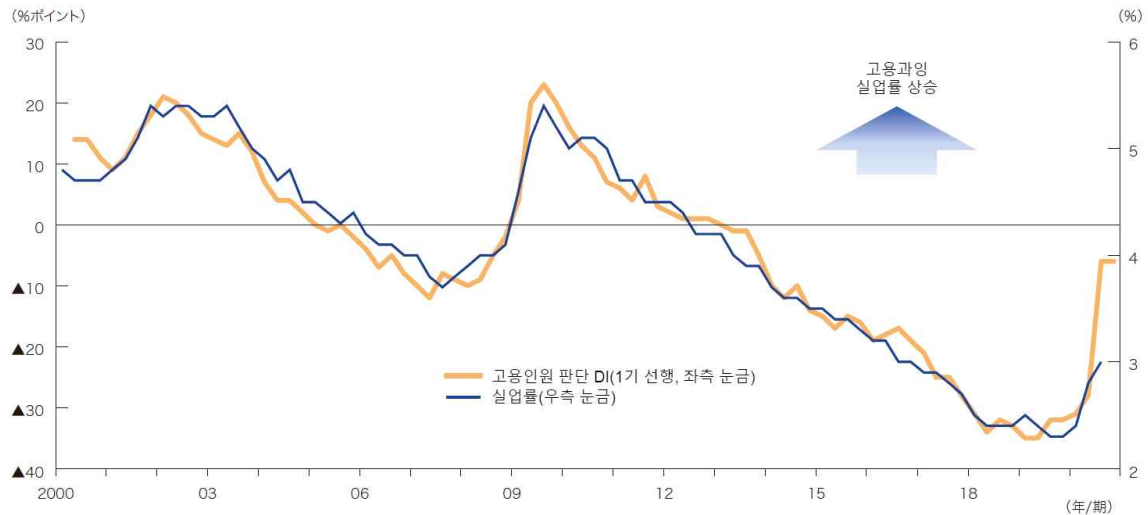
-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은 리먼 쇼크 때와 맞먹는 수요 감소에 직면했지만 일본은행 20년 9월 조사의 이익계획에 따르면 2020년도 상반기의 경상이익 감소폭은 전년도 대비 ▲38.9%로 리먼 사태 때(▲70.1%)의 절반 정도에 그침
- 고정비의 삭감 등 재무 조정을 진행해 매출이 감소해도 이익이 줄어들기 어려운 경영체질이 되어 기업 수익을 밑받침하는 것이 투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 작년 주요 기업의 3분기 결산 발표에서는 수출과 내수 회복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2020년도 분기의 실적 전망을 상향수정하는 기업이 잇따랐음
- 일본은행 9월 조사의 이익계획에서도 2020년도 하반기의 경상이익은 전년도 대비▲15.7%로 상반기(▲38.9%)에 비해 감소폭이 대폭 축소될 것을 전망하고 있음
- 이 같은 수익환경 개선에 힘입어 설비투자도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임

3. 개인 소비

- 개인 소비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음
- 대면 소비 활동을 삼가는 움직임이 여전히 강하고 식당 영업시간 단축이나 외출 자제를 재차 요청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음
- 여기서 백신의 개발에 기대가 모이지만 공급면의 과제와 안전성에 대한 불안도 여전히 당분간 감염자 수의 동향에 좌우되는 형태로 자제하는 분위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됨
- 백신의 조기 공급이 실현되었다고 해도 향후는 고용·소득 환경의 악화가 개인 소비를 압박할 것임
- 신형 코로나 유행 후의 고용 관련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고용 정세의 악화는 한정적임
- 실업률은 상승 경향에 있지만 3분기 취업자 감소폭은 전년 대비 ▲77만명으로 취업자 전체의 1%에 지나지 않고 고용 감소는 비정규 노동자의 일부에 머무르고 있음
- 경제활동 침체에 비해 실업률 상승폭이 작은 것은 기업들이 해고가 아닌 일시귀휴나 휴직, 단시간 근무 등의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업의 고용 보장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음

- 일본은행의 2020년 9월 조사에 의하면 고용의 과부족을 기업에 질문한 고용 인원 판단 DI(과잉-부족)는 ▲6포인트로 여전히 과부족이지만, 반년 전의 조사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해 2013년 9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임(도표4)

(도표4)실업률과 고용인원 판단 DI



(資料) 日本銀行、総務省

- 이 때문에 향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이 2021년 전반에 걸쳐 2013년 수준인 4% 가까이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임
- 한편 임금에 대한 하향 압력도 강하기 때문에 개인소비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밑도는 상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 전망과 과제

1. 회복 속도는 완만함

-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해 일본 경제를 전망하면 2020년 3분기의 실질 GDP 성장률은 과거 최대의 플러스 성장을 이뤘지만 긴급사태 선언이나 세계 각국의 락다운의 영향에 의한 급격한 경제활동의 축소로부터의 반동이라는 측면이 강함
- 수출, 인바운드 수요, 설비투자 등의 항목을 고려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경기회복 페이스는 완만하게 머무르기 때문에 2021년도의 성장률은+3.5%로 과거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망되는 2020년도(▲5.1%)의 침체로부터의 회복으로서는 약하다 할 수 있음(도표5)
- GDP가 신형 코로나 유행전의 정점인 2019년 3~9월기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2023년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도표5)일본 경제 성장률 및 물가 등 전망

(前期比年率、%、%ポイント)

	2020 年				2021 年				2022 年	2019 年度	2020 年度	2021 年度
	1～3	4～6	7～9	10～12	1～3	4～6	7～9	10～12	1～3			
	(実績)			(予測)								
실질GDP	▲2.1	▲29.2	22.9	5.6	1.0	2.2	3.1	0.6	2.0	▲0.3	▲5.1	3.5
개인소비	▲2.4	▲29.4	22.1	4.2	1.0	2.2	2.9	1.2	2.0	▲0.9	▲6.0	3.3
주택투자	▲14.1	2.0	▲21.2	2.8	10.4	5.8	4.5	▲2.5	▲0.3	2.5	▲6.6	2.7
설비투자	5.8	▲20.8	▲9.3	10.4	5.9	3.7	2.4	2.6	3.6	▲0.6	▲6.8	3.7
재고투자 (寄与度)	(0.6)	(0.4)	(▲0.7)	(0.1)	(0.0)	(0.0)	(0.0)	(0.0)	(0.0)	(▲0.1)	(0.0)	(▲0.0)
정부소비	▲1.1	1.1	11.6	1.8	▲3.5	1.1	3.8	▲2.6	1.0	2.0	2.6	1.0
공공투자	▲0.2	7.8	1.9	3.0	2.1	▲3.3	▲0.6	0.6	0.8	1.5	3.7	0.0
공적재고 (寄与度)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수출	▲19.6	▲52.8	31.2	31.0	3.8	4.9	6.2	2.8	3.9	▲2.6	▲13.1	8.8
수입	▲12.0	5.5	▲30.8	23.4	4.3	3.5	4.6	1.9	3.1	▲1.2	▲6.1	3.3
국내민수 (寄与度)	(▲0.4)	(▲21.3)	(7.8)	(4.1)	(1.8)	(2.0)	(2.1)	(1.0)	(1.6)	(▲0.6)	(▲4.6)	(2.4)
관공수 (寄与度)	(▲0.2)	(0.6)	(2.6)	(0.6)	(▲0.6)	(0.1)	(0.8)	(▲0.5)	(0.3)	(0.5)	(0.7)	(0.2)
순수출 (寄与度)	(▲1.5)	(▲11.0)	(11.5)	(1.2)	(▲0.1)	(0.2)	(0.3)	(0.2)	(0.1)	(▲0.2)	(▲1.2)	(0.8)

(前年同期比、%)

명목GDP	▲1.1	▲9.0	▲4.6	▲2.4	▲1.7	7.4	2.5	1.7	1.9	0.5	▲4.4	3.3
GDP디플레이터	0.9	1.4	1.2	0.2	0.2	▲0.3	▲0.5	0.0	▲0.1	0.9	0.7	▲0.2
소비자물가지수(除く生鮮)	0.6	▲0.1	▲0.2	▲1.2	▲0.9	0.0	0.1	0.6	0.5	0.6	▲0.6	0.3
(除く生鮮、消費税、教育無償化)	0.2	▲0.4	▲0.5	▲1.2	▲0.8	0.0	0.1	0.6	0.5	0.4	▲0.7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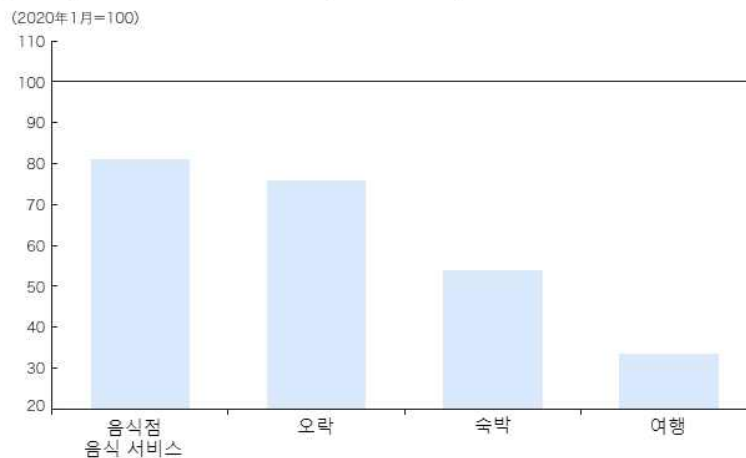
완전실업률(%)	2.4	2.8	3.0	3.4	3.8	3.8	3.6	3.4	3.3	2.3	3.2	3.5
연 달러 환율(円 / ドル)	109	108	106	104	104	105	105	105	105	109	106	105
원유수입 가격(ドル / バレル)	68	31	41	45	50	50	51	51	54	68	41	51

(資料) 内閣府、総務省などを基に日本総研作成

2. 회복 격차

- 이번 코로나19의 특징은 업종과 기업 규모, 판매 전략의 차이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며 최근에는 기업 간 실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우선 업종별로 보면 숙박, 음식, 서비스업, 오락, 여행 등 개인 서비스업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도표 6)
- 게다가 신형 코로나 유행을 계기로 생활 양식과 소비 행동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입지와 판매 전략에 의해서도 기업 간의 실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자택 인근에 머무르는 사람이 증가한 반면 중심가의 인파가 대폭 감소하여 중심가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던 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또 신형 코로나 유행을 계기로 실제 점포에서 전자 상거래로 시프트가 가속화되고 있어 인터넷 사업을 전개한 기업과 아닌 기업간에도 실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도표6)업종별 경제 활동 수준(2020년 9월)



(資料) 経済産業省「第3次産業活動指数」を基に日本総研作成

3. 코로나화를 사업 기회로 삼아야

- 리모트 워크로 대표되는 생활 양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소비 행동의 변화는 코로나 19 수습 후에도 어느 정도 정착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경제·사회의 디지털화도 한층 빨라질 것임
-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기업이 이를 계기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혁해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신규사업 진출이나 판로 확대로 연결해 가는 것이 요구될 것임
- 정부도 지난해 12월 내놓은 경제대책에서 중소기업의 업태 전환, 신규사업 진출 등에 따른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보조금 창설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투자에 단행할 찬스라고 할 수 있음
- 또 기업 간 실적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인재 이동을 얼마나 원활히 진행하는지도 큰 과제임
- 대기업 중에는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 인재를 일시적으로 타업종 기업에 파견하는 시책을 시작하고 있는 기업이 있음
- 지자체도 기업간에 인재를 서로 융통하기 위한 매칭 장소를 마련하는 등 코로나19를 극복하려고 하는 기업을 서포트할 필요가 있음

< 원본자료 >

村瀬拓人 「2021年の日本経済の展望と中小企業の成長戦略」 JIR常陽産研NEWS 2021/1月号(2021.02.11.)

http://www.jir-web.co.jp/jirnews/202101/202101_03.pdf